

# 갤러리·라이프스타일 디자인 공간 ‘협업’ 주목

비블리오페고·예술공간 집 매칭 전시 구현  
28일까지 작가 5명 작품과 아르텍 가구 등  
“젊은 작가들 작업 매우 흥미로웠다” 밝혀

“이번 전시를 통해 가구가 예술작품과 함께 감각적으로 경험되고 확장되는 새로운 장면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과 공존하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는 비블리오페고(대표 김영관)와 예술공간 집이 함께하는 협업 전시가 지난 10일 개막해 오는 28일까지 서구 상무대로 1156번지 소재 비블리오페고 2호점 1층 전시공간에서 'Pairing Room-Artek × Five Artists'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가운데 김영관 대표가 전시를 앞두고 피력한 소감이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나 미술관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 이뤄진 협업을 통해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다.

협업 전시는 핀란드 모더니즘 디자인과 동시에 회화가 한 공간 안에서 구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 갤러리인 예술공간 집과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공간인 비블리오페고가 협력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실험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번 협업은 지역 예술 생태계와 글로벌 디자인 브랜드 간의 접점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술공간 집의 큐레이션, 비블리오페고의 공간 경험, 그리고 세계적 디자인 브랜드 아르텍(Artek)의 디자인 철학이 교차하며 로컬 기반 문화 협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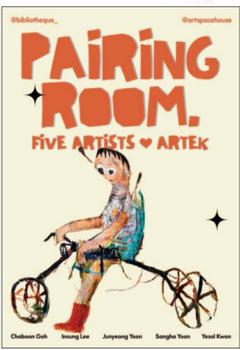
전시는 아르텍 매니징 디렉터 마리안네

괴블(Marianne Goebel)의 큐레이션 아래, 작가의 시선과 아르텍의 디자인 철학이 섬세하게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마리안네 괴블은 디자인 마이애미 디렉터(2011~2014)를 역임했으며, 세계적인 디자인 페어 운영과 글로벌 컬렉터 및 갤러리와 협업 이끌어 온 디자인 분야의 주요 인물이다. 그는 최근 전시 오프닝에 맞춰 광주를 방문해 아르텍의 역사와 철학을 소개하고, 참여 작가들과 직접 만나 작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르텍은 핀란드를 대표하는 가구 브랜드로 1935년 설립됐다. 설립 초기인 1937년에는 현대미술가 페르낭 레제(Fernand Leger)와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의 작품 및 아르텍 가구를 함께 선보이는 협업 전시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당시 전시됐던 일부 작품은 현재까지 아르텍에 소장돼 있다.

특히 가구와 작품이 ‘페어링’(pairing)된 형식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단순히 디자인과 예술을 병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구조·비례·재료라는 디자인의 언어와 감정·시간·서사를 다루는 회화적 접근이 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호흡하도록 기획됐다.

관람자는 작품 앞에 잠시 앉아보고, 가구 옆에서 그림을 바라보며, 천천히 공간을 거닐게 된다. 바라보는 오브제로서의 가구를 넘어, 몸을 지탱하고 시간을 받아들이며 감정이 머무는 구조물로서의 디자



인을 경험하도록 제안한다. 작품과 가구는 ‘앉음·머물·호흡·균형·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이어지며, 보는 전시에서 앉고 머무는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된다.

전시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고차분, 이인성, 윤준영, 윤상하, 권예슬 작가 등 5명과 아르텍의 가구 및 오브제를 페어링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먼저 고차분 작가의 작품은 아르텍의 도무스 체어(Domus Chair)와 페어링됐다. 1949년부터 생산된 도무스 체어는 아르텍을 대표하는 의자로, ‘도무스’(Domus)는 라틴어로 ‘집’을 의미한다. 윤준영 작가의 작품은 블랙 색상의 안테나와 페어링돼 화면의 주조를 이루는 색감과 절묘한 조화를



윤준영 작가의 작품.

패하며, 이인성 작가의 작품은 아르텍의 대표 가구인 스툴(Stool)과 함께 배치, 작품 속 주황색 점과 원형 구조가 경쾌한 리듬을 만들어낸다.

이어 윤상하 작가의 작품은 핀란드의 대표적 동화 브랜드 무민(Moomin) 컬렉션 가구와 페어링됐다. 상상의 세계를 펼쳐내는 윤 작가의 화면과 토베 얀손(Tove Jansson)의 서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권예슬 작가의 작품은 아르텍의 플랜트 팟(Plant Pot)과 페어링돼 자연과 생명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공간에 하나의 인식과 같은 장면을 형성한다.

아르텍 매니징 디렉터 마리안네 괴블은 “젊은 작가들의 작업이 매우 흥미로웠다. 예술가들과 함께해 온 아르텍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 전시가 지역 작가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전시 기간 동안 전문 큐레이터가 상주해 작품과 디자인의 관계에 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전시관람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은 휴관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전시 오프닝에서 마리안네 괴블 매니징 디렉터가 아르텍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다.

## 영호남 가로질러 봄 알리는 화합의 하모니

내달 12일 오후 7시 30분 2026년 문화재단 예술극장 극장2  
광주-부산 시립합창단 교류...루네스타드 ‘리추얼’ 초연

광주와 부산을 대표하는 두 시립합창단이 음악을 통한 깊은 소통과 우정의 순간을 선사한다.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임창은)이 오는 3월 12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의 공동 주최 협업 공연으로 예술극장 극장2에서 2026년 첫 정기연주회 ‘Friendly Concert’를 올린다.

이번 연주회는 광주와 부산을 대표하는 두 시립합창단이 목소리로 하나 되는 영호남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고유의 예술적 색채가 돋보이는 개별 무대부터 봄의 생동감을 담은 연합 하모니까지 공연은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현대 합창의 정수를 들려

준다. 먼저 부산시립합창단이 현대 합창의 거장 에센발트의 ‘바다의 한 방울’과 ‘때가 되었도다’로 신비로운 울림을 전하며 공연의 포문을 연다.

이어 광주시립합창단이 현대 합창의 거장 루네스타드의 ‘리추얼’과 전경숙의 ‘벚꽃’을 통해 깊이 있는 예술성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루네스타드의 ‘리추얼’이 국내 초연되는 것이어서 합창계와 관객들의 뜨거운 기대를 모은다.

2부는 분위기를 전환해 관객과 호흡하는 역동적인 무대를 꾸며진다. 남아프리카 민요와 팝, 재즈 등 대중적인 레퍼토리가 이뤄진다. 부산시립합창단은 남아프리카 전통민요 ‘센제 나’와 페

데르센의 ‘알란 와 사울란’, 베기센의 ‘아메잘리와 투상길리에’를 무대에 올린다. 광주시립합창단은 마이클의 ‘웨이크 미엄 비포 유 고-고’와 ‘잊어질더 폴 월드’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무대를 채울 ‘싱. 싱. 싱’과 ‘아이 오브 더 타이거’는 합창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끽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공연의 대미인 3부 연합 무대에서는 두 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남아프리카 전통 민요 ‘인도다나’와 윤복희의 ‘우리’를 연주하며 영호남 화합의 메시지를 전한다. 수십 명의 단원이 만들어내는 웅장하고 따뜻한 하모니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광주시립합창단 누리집과 예스24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입장료는 전석 1만원.

정혜경 기자 view2018@



광주와 부산을 대표하는 두 시립합창단이 음악을 통한 깊은 소통과 우정의 순간을 선사한다. 사진은 광주시립합창단(왼쪽)과 부산시립합창단의 공연 모습.

## ‘MZ가 묻고 라떼가 답하는 정치’ 공금증 풀다

신동기 정치일반서 ‘민지의 정치 공부 ①’ 펴내  
‘시민을 위한 정치학’·‘시민학’ 지향 공감 유도

광주 출신으로 국내 최초로 인문학 범주화(15가지 주제)를 시도해 기업·정부·기관·대학·방송 등에서 강의해온 신동기 씨가 정치일반서로 분류되는 ‘민지의 정치 공부 ①’(생각여행 펴냄)을 펴냈다. ‘MZ가 묻고 라떼가 답하는 정치’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부제로 나온 이 정치일반서는 일종의 ‘시민학’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치의 주체는 사실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지만 시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치 책을 드물다. 정치인들의 자기 PR 책, 교수들의 심오한 정치 이론서, 아니면 한쪽에서 다른 편을 공격하기 위한 책이 대부분이다. 저자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시각 아래 ‘정치인의 정치학’이 아닌 ‘시민의 정치학’을 생각하게 한다.

특히 이 정치일반서는 주권자인 시민의 시선으로 정치를 묻고, 시민의 시선으로 정치를 답한다. 한마디로 ‘시민을 위한 정치학’과 ‘시민학’을 지향하며 ‘독자 친화형(대화체) 시민학’을 추구한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읽기 편한 글 형식은 대화체다. 대화체에서는 독자 역시 외부에 머물지 않고 등장인물과 함께 대화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자신도 한 번쯤 의문을 가졌던 질문에 대해서는 격하게 공감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평소 생각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생각의 지평



을 넓히면서, 이 책에서는 ‘보수와 진보’, ‘민주주의’와 관련된 100가지 이상의 주요 질문이 등장해 독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또 정치의 여러 주요 본질을 실제 현상을 소재로 정리한 ‘시민학’이라는 점이 다. 소모적·퇴행적 보수·진보의 대립 현상으로부터 보수·진보 대립의 진화 패러다임인 ‘정치혁명의 구조’를 찾아내고, 극우의 반사회적 행동으로부터는 히틀러나 치즘의 본질과 반계몽을 발견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제왕적 행위로부터는 3권분립의 현실적 한계(‘행정’ 권력의 제왕적 특성)를 간파한다.

이외에 ‘신세대, 기성세대 모든 독자를 번쯤 의문을 가졌던 질문에 대해서는 격하게 공감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평소 생각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생각의 지평

할에 머물지 않는다. 질문은 직선적이고 안개가 걷힐 때까지 이어진다. 동의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힌다. 현상을 포착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적극적이다. 신·구 세대의 때로 공감하고, 때로 교차하는 시선은 당연히 양 세대 모두의 정치에 대한 생각의 지평을 넓힌다.

저자인 신동기씨는 광주상고(현 광주 동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 한국산업리서㈜ 및 동사 일본 현지법인인 KDB Lease (Japan) Co., Ltd.에서 리스금융, 국제금융을 담당했다. 퇴직 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체계서양 연구과 정(2년)을 수료했다. 저서로는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정치의 상식’, ‘아주 낮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 ‘오래된 책들의 생각’, ‘네 글자의 힘’, ‘독서의 이유’, ‘해피노믹스’, ‘인문경영으로 리더하라’, ‘회사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깨는 인문학적 생각들’, ‘인문학으로 스펙하라’, ‘미래사회 리더의 경영 키워드’, ‘직장인 이어나 자신에게 열광하라’ 등 다수가 있다. 그의 다수의 오디오북과 ‘진순신의 삼국지 이야기’, ‘나는 사람에게 투자한다’ 등 18종의 번역서가 있다.

신구대 글로벌경영학과 건국대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사업’ 2023·2024년 기획위원 및 심사위원을 지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